



국가대표의 꿈을 이룬 그는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진=정우영 선수 제공)

“무엇보다 축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해” ‘마지막 월드컵 후회 남기지 않겠다’ 전해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박상희 기자 smth7475@khu.ac.kr

대화는 함께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임과 동시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신문은 각 분야에 진출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나 자신과 마주 보려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보려 하는 정우영 동문(스포츠지도학 08)을 만나 축구선수로서 희(喜)와 비(悲)를 거듭하며 성장한 그의 열정과 포부를 느껴봤습니다.

부담을 업고 질주하다

정우영 동문에게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가는 것은 어릴 적부터 간절히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부담과 압박감마저도 국가대표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무게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바람은 단지 축구를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가대표의 꿈을 이룬 그는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 동문은 런던 올림픽 한일전과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등에서 국민에게 즐거움과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을 꼽았습니다. 축구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상대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었던 그날, 베팅 끝에서 구조된 기분과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독일전에 앞서 스웨덴전과 멕시코전에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기에 더욱 간절히 뛰었던 경기였다”며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독일전 승리로 힘을 드렸던 것 같아 뿌듯했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응원만큼 많은 비난과 비판은 국가대표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정 동문은 “경기를 잘하고 이기는 모습만 보여드릴 수 없기에 비판 여론도 국가대표로서 부담해야 할 무게의 일부”라며 “때론 어떠한 여론이든 넘길 수 있는 정신력도 국가대표의 조건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칭찬과 비판은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며, 이에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대응하려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생활 경험은 소중하다

정 동문에게도 한때 난관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신체 성장이 느렸

던 탓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키가 계속 자랐고, 이는 운동에 어려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는 밤낮으로 더 많은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 동문은 “일단은 자신이 부족한 점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라며 “나의 단점을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의 그는 자신의 부족한 피지컬을 채우기 위해 남들보다 배로 많은 노력을 쏟았고, 그러한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정 동문은 대학 생활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최대한 수업에 들어가서, 다른 분야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는 것을 추천한다”며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 생각했던 대학 시절이 가장 많이 변화하고 성장한 시기가 됐다”며 대학 생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팀원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

정 동문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기를 치르는 것, 즉 16강 진출이라는 포부를 밝혔습

니다. 그러면서도 월드컵 유경험자로서 큰 무대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고, 경기를 가능한 즐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큰 대회를 치르면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장을 뛰어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월드컵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응원해주는 국민들도 자연스레 즐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동문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팀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그는 “공격과 수비 선수 모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기한다”며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튀거나 빛나기보다는 팀원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만, 그들을 뒤에서 돕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지난 훈련을 떠올리며 정 동문은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팀원과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 호흡을 맞추는 뿐만 아니라, 훈련 외의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선수와는

서로의 눈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팀처럼 짧은 기간 내에 호흡을 맞춰 경기해야 할 때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 역시 팀원과의 호흡에 집중하고 있다”며 “식사 시간과 그 외의 시간에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라

어느덧 노장 선수로 접어드는 나이가 된 정 동문은, 어떻게 부상 없이 경기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가 선수 생활을 최대한 오래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보다 축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적지 않은 선수로서 체력 관리에 노하우가 쌓인 그이지만, 늘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태도는 그가 후배들에게 전하고픈 조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동문은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껴왔으며, 굴곡도 많은 선수 생활이었음에도 국가대표라는 꿈과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명확한 꿈을 세우고 쫓다보면 그에 걸맞는 노력이 자연스레 뒤따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다신 이렇게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볼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있든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